



주보 표지 공모전(사진 부문) 수상작 : 양순익 세례자요한(삼계성당)

## 연중 제31주일 2024년 11월 3일

### 입 당 송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제 1 독 서 신명기 6,2-6

### 화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후렴)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 하나이다.

1.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2.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3.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 제 2 독 서 히브리서 7,23-28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 음 마르코 12,28ㄱ-34

###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사랑의 착각

여러분은 혹시 적당한 신앙생활과 손해 보지 않는 봉사활동 정도로 하느님의 축복과 삶의 기적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적당히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삶으로 자신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적당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 목숨, 정신, 힘을 다하라고 하셨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마르 12,29-31참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랑의 불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들어라)입니다. 신앙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고, 잠깐의 시간조차 내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자기 말만 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웃(배우자, 가족,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

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착각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자신에게 피해나 손해, 조롱과 모욕을 주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끊어내지 않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양다리'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사랑없는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안하게 되고, 하느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진수 골롬바노 신부  
송정성당 주임



자  
비  
전  
영  
모  
집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하셨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주님 보시니 참 좋았으리라.

주보 표지 공모전(사진 부문) 수상작 : 양순익 세례자요한(삼계성당)

#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따뜻하게 꿈꿨고 싸매고 다니길 바라는 요즘입니다. 온몸을 내리찍던 여름 기운은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쌀쌀한 바람만이 남은 걸 보니 딱 감기 걸리기 좋을 것 같거든요. 2024라는 숫자가 어색했는지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유독 올해는 날짜를 표기할 때 정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벌써 2025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온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 제대로 박힌 것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한 해에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작년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에 올라온 후 처음 받은 성적표가 가장 충격적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 과연 무엇이 떠오르려나 하니, 역시 부산가톨릭고등학생연합회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처음 유닛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믿음보다는 의무감으로 성당을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24년 겨울 LT(Leadership Training)가 저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찾는 모습, 또 하느님에 대한 한 치의 의심도 없는 모습을 보며 내가 결국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겨울 LT를 끝내고 난

후, 내가 여기서 느꼈던 감정들과 깨달았던 것들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운셀 회장단 선거에 나갔고, 부회장을 맡아 지금의 62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2대와 함께 하는 활동들은 모두 저로 하여금 겨울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봉사자로서 참가자들에게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준다는 것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은 다음 활동을 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모든 것들은 아직 함께 할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빛나 보이며 벌써부터 불특정한 한 시점을 추억하도록 만듭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억을 남겨준 22명의 친구들과 부산가톨릭고등학생연합회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와 함께 한 시간들을 예쁘게 추억하고, 더 예쁜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시없을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진 효 주 로즈마리

민락성당 · 부산가톨릭고등학생연합회 제62대 부회장

<b>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b> 부산 울산 녹산(서부산) 마산 FM 101.1MHz FM 93.7MHz FM 101.5MHz FM 101.7MHz				<b>오늘의 강론</b> 월-토 06:50 (재) 16:50 11.4(월)~11.9(토) 신진수 신부(송정성당 주임)	
 <p><b>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b>                  11.8(금) 14:00~16:00                  진행: 김진호 신부, 박소정 찬양사도                  1부 &lt;생활성가플리마켓&gt;                  출연: 안하윤 스텔라(청년 국악인)</p>		 <p><b>소리 풍경</b>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를 위한  <b>배리어프리 영화콘서트</b></p>		<p><b>배리어프리 영화콘서트</b>  <b>소리풍경</b>                  11.9(토) 14:00~16:30                  [1부] 배리어프리 공연                  [2부] 영화 &lt;소풍&gt; 상영                  감독 김용균 / 출연 김영록, 나문희, 박근형</p>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둔 창의 인재 양성



# 대양고등학교

모집정원 - 남녀공학, 학과모집, 전국모집

구분	e스포츠과	IT네트워크과	전기전자과	총계
학급수	2학급	2학급	3학급	7학급
특별전형 (취업희망자)	32명	32명	47명	111명
일반전형	8명	8명	12명	28명
정원계	40명	40명	59명	139명

## e스포츠과

e스포츠 프로선수 및 코칭,  
게임 기획 개발



## IT네트워크과

네트워크 및 보안,  
사물인터넷(IoT), 응용SW개발



## 전기전자과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로봇, 드론 기술



## 특색사업·혜택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인성 중심 교육 실시

다목적 운동장(풋살,  
농구, 족구, 테니스 등)  
천연 잔디 축구장 운영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특별반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기구가 완비된  
전문 헬스장 운영



다양한 동아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진학·취업 현황

**진학**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부산대, 동국대, 경상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경성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동서대, 동명대, 신라대 등

**취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부산교통공사, 공무원, 부산관,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기, 삼성LCD, 쿠쿠전자, 글로벌 탭넷, 스태츠칩팩코리아, 제일일렉트로닉스 등

천주교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대양고등학교** <http://daeyang.hs.kr>

48464 부산시 남구 지계골로 128-27(문현동)  
입학안내 : 051)6400-541~3 FAX : 6400-680  
교무실 : 6400-580 행정실 : 6400-515

교장 : 강경태(루카) 교목 : 김문경(비오) 신부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지계골역 1번 출구 5분 거리



## 위령 성월

위령 성월은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특히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98년 클뤼니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널리 퍼지면서 11월이 위령 성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1세가 위령 성월에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위령 성월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도 죄에 따른 벌,

곧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모든 잠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해에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모든 가톨릭 교회의 위령 성월 전대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적용되며 **1) 고해성사를 하고, 2) 영성체를 해야 하며, 3)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매일미사책’ 첫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묘지를 경건히 참배하여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5) 성당, 경당 그리고 교구장이 정한 장소에 경건히 방문해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쳐야 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2티모 2,11)

그리스도인은 세례 성사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룹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10항 참조)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미사 경본의 위령 감사송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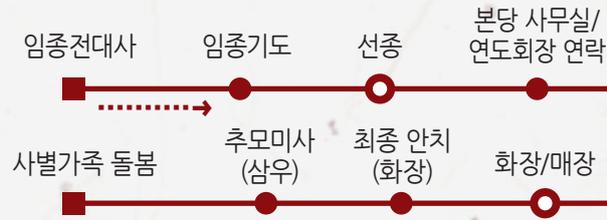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죽음 뒤에 환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지상 생활 여정을 마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죽을 때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권유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께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기를 청하고(성모송), 죽음을 앞둔 이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에게 자신을 맡기라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라는 <준주성범>의 내용처럼 위령 성월을 지내며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가톨릭 교회의 장례 절차



## 임종 전 준비

죽음을 앞둔 가족, 친지가 있다면 먼저 본당에 병자 성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목주와 영정 사진, 임종을 앞둔 이의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장례 준비가 수월합니다.

또한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이 장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되면 연도회(선종봉사회)의 도움으로 '임종 예식'을 바치며 죽음을 거룩하게 맞이할 준비도 합니다. 대체로 주보 본당면에는 본당 사무실 전화번호와 본당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 장례 절차

선종하면 본당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빈소를 병원 또는 본당에 있는 장례식장에 마련합니다.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이 도착하면 장례와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상담 내용은 전체 장례 일정, 장법(화장, 매장), 화장장 예약, 장례미사 시간,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의차, 장지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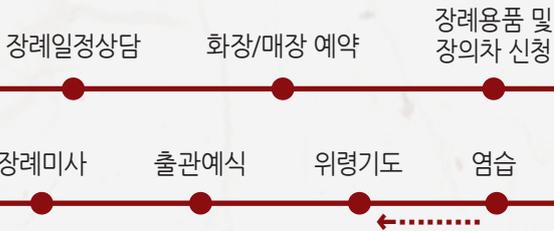
연도회(선종봉사회)는 장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일정 동안 세상을 떠난 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상장 예식에 따라 염습과 입관 예식, 출관 예식을 거행하고, 빈소에서 가족, 친지, 본당 신자들이 위령기도(연도)를 바치는 동안 봉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장지까지 함께 이동하며 화장 전후 예식과 하관 예식(매장), 안치 예식(화장)까지 봉사합니다.

장례 용품은 교구 사회사목국의 선종사업부가 제공합니다. 교구 선종사업부는 故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님의 뜻을 받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제공하고, 수익금은 전액 교구의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통상 선종한 다음 날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미사 전에 출관 예식으로 빈소에서 떠나고 본당에서 장례 미사를 드린 다음 장지로 이동합니다. 다만 본당 일정과 장례 일정이 맞출 수 없으면 빈소에서 본당 신부의 주례로 고별식만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봉안함





장지는 개인 가족의 묘지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교구에서는 신자들을 향한 배려로 하늘공원(경남 양산시 상북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 공원묘지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 마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공원의 매장은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자리만 가능하고, 신규 계약은 화장 안치만 가능합니다. 안치는 실내에 모시는 봉안당과 야외에 모시는 봉안묘로 나눌 수 있고, 봉안당과 봉안묘 모두 가족, 부부,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봉안묘는 땅에 봉안함을 안치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교구 선종사업부에서 특수 제작한 봉안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안묘용 봉안함

해양장, 산골(散骨)은 가톨릭 교회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를 통해서 명확하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5항)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도 안 된다.”(7항)

**장례 관련 문의 : 본당 연도회(선종봉사회) 및 교구 사회사목국 선종사업부 010-3560-5854**

## 천주교 공원묘지 하늘공원



문의 : (055)374-8733



## 선종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선종(善終)'이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을 마친다."라는 뜻의 선생복종(善生福終)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소천, 귀천, 열반, 입적 같은 다른 종교의 용어는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 연도회와 선종봉사회

연도회는 본당에서 장례가 나면 선종봉사를 돕고 빈소에서 위령기도를 바치는 이들의 단체입니다. 본당 상황에 따라서 선종봉사자만 모아서 연도회 대신 선종봉사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위령기도와 연도 위령 미사와 연미사 추모 미사와 삼우

죽은 이를 위해 바치는 위령기도를 예전에는 '연도(煉禱)'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 전례의 공식 용어는 '위령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역시 예전에는 '연미사'라고 했지만, '위령 미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삼우(三虞)는 장례 이틀 뒤에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찾아가던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관습대로 미사를 드리고 묘소에 찾아가 위령기도를 바치지만, 이 미사는 '삼우 미사'가 아닌 '추모 미사'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 하늘공원 제2봉안당

교구민들의 장례 편의와 유가족들의 위로와 평화, 교구 신자들의 위령 신심 증진을 위하여 하늘공원 제2봉안당이 내년 중 개관을 목표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2024년 교리교사의 날

지난 10월 20일(일) 푸른나무교육관에서 제39회 교리교사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교리교사의 노고에 감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과 공연, 포토존, 먹거리존, 체험존 등)이 마련되었다.



미사 중에 장기근속 교리교사에 대한 시상식(5년-38명, 10년-28명, 15년-2명, 20년-2명)과 2024년 새샘학교를 수료한 신입교사 수료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청소년사목국(국장: 이원용 신부) 주관

## 지체장애인복지회, 오륜대순교자성지 건축기금 1억원 봉헌



10월 25일(금)

지도: 유연창 신부, 회장: 김치봉 마태오

##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10월 20일~10월 26일] 합계: 7,366,800원, 누계: 3,582,897,012원

옥동신비로운장미 100,000 김하나 2,000,000 차영호 1,000,000 공간하우정김기수 50,000 옥동익명 100,000 홍아린 5,000 김유빈 1,000 신동혁 800  
 이명아 300,000 백인기 100,000 이진호 100,000 장원호 100,000 하숙연 50,000 박상심 30,000 이희중 50,000 박주남 50,000 홍은성 30,000  
 류선희 200,000 장영자 100,000 송미령 100,000 김덕숙 100,000 양영숙 50,000 박병규 10,000 최수련 10,000 김용례 10,000 전종만 10,000  
 정춘화 200,000 김광배 300,000 천요셉 300,000 이정자 100,000 송아현 50,000 박선하 50,000 김국원 30,000 지수미 30,000 이주희 10,000  
 김수경 100,000 김영철 500,000 홍경구 200,000 안예린 100,000 김치욱 50,000 강채림 10,000 곽일남 50,000 이지예 50,000 김정희 50,000  
 장금숙 100,000 김도경 300,000 이선호 100,000 서지연 30,000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 미사 중 '주님의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앞에 '초대'의 말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기도'와 마무리하는 '환호'가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인 "악에서 구하소서."를 반복하여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라고 말하며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런 방식을 '엠볼리스무스'(embolismus)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초세기에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모두 바쳤는데, 미사에 도입된 것은 6세기이며, 사제가 혼자 속으로 외우던 기도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년)는 이 기도를 사제가 소리내어 바치도록 하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티토 2,13)라는 성경 구절을 더하여 종말론적 성격을 부각하였습니다.

사제의 후속기도에 교우들이 환호로 화답하여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 기도는 일종의 영광송인데, 일찍이 교회는 전례 안에서 주님의 기도에 영광송을 덧붙여 기도했습니다.(디다케 8,2 참조) 이렇게 교우들이 환호하여 영광송으로 장엄하게 마치기에 따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과 대축일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초대부터 환호까지 모두 성대하게 노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1항) **전례위원회**

## 교 구

### 11월 혼인강좌

· 11.10(일) 15:00~18:50 · 부산가정성당  
대상 :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 100% 온라인(catholic-marry.or.kr),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 접수 불가  
문의 : 441-3501(가정사목국)

### 예신월모임(중강)

· 11.10(일) 12:30 접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문의 : 629-8760(성소국)

## 본 당

### 사하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구함

접수 마감 : 11.10(일)  
문의 : 010-9618-2900(성가단장)

## 기관·제 단체·위원회

### 오순절평화의회 11월 김해후원회미사

김해 : 11.4(월) 10:00 임호성당  
문의 : 782-0765

###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11.5(화) · 중앙성당 대성전  
10:00 성시간, 11:00 월미사(양형영성체)  
주례 : 조성문 지도신부 / 문의 : 466-2290

###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11.11(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11.12(화) 10:00 야음성당  
부산 : 11.14(목) 10:30 우동성당  
문의 : 600-8800

###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 11.11(월) 14:0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41-3239(비아회)

### 파티마의세례사도직 기도모임

- 11월 목주 100단 기도회  
· 11.4,11,18(월) 09:30  
- 11월 평 금요일 철야기도회  
· 11.8,15,22,29(금) 22:00  
22:30 미사 / 익일 04:00 미사  
문의 : 646-3746, 010-6764-3746

###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1.19(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김기영 신부 / 문의 : 010-8879-2376

### 453차(자매) 꾸르실로 참가신청

· 11.14(목)~17(일)  
\* 신청서 상시 접수(각 차수 50명 선착순 마감)  
문의 : (055)388-5734 또는 본당 간사

### 제98차 부산선택주말

· 11.22(금)~24(일) · 남천동 푸른나무교육관  
대상 : 40세 이하 미혼 청년, 비신자 환영  
참가비 : 12만원  
문의 : 010-2741-0324(손주희)

### ME부산협의회 29차 쇠신주말

· 11.23(토) 14:00~24(일) · 마리아 피정센터  
대상 : ME 주말을 경험한 부부  
문의 : 010-2564-4905, <http://bsme.or.kr>

### 김범우순교자성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순례와 파랑양상블 중창단 작은음악회

· 11.9(토) 09:00 삼랑진역 도보순례 출발  
미사 후 작은음악회  
문의 : (055)356-7030(식사 주문 가능)

### 나팔을 불어 희망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

2025희년을 바라보며  
故 김수환 추기경 서거 15주년 추모음악회  
· 11.11(월) 19:30  
·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전석초대  
연주 : 부산가톨릭합창단, 서울가톨릭합창단  
문자문의 : 010-7169-0404

### 성령쇄신 봉사회(영성의집)

- 수요 성시간 치유기도와 미사  
· 11.6(수) 13:00~15:30  
- 금요일미사 : 11.8(금) 19:40~22:30  
- 500차 교구성령묵상회(일반)  
· 11.22(금) 18:00~24(일) 17:30  
문의 : (055)382-9465

### 성령쇄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 치유 낮 기도회(매월 첫 화요일)  
· 11.5(화) 13:00~15:00(미사 14:20)  
- 목요일 미사 11.7(목) 20:00~22:30  
문의 : (052)244-7014

###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32>

· 11.8(금) 19:30 · 서면성당 센다/ 출연 : 89's  
주제 :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로마 1,11)  
진행 : 이재석 신부 / 문의 : 809-0642

### 정의평화위원회 무료 특강

· 11.13(수) 19:00 · 가톨릭센터 3층  
주제 : 뉴라이트의 기원과 논리(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누구나 참여 가능 / 문의 : 465-9508

### 부산가톨릭 성음악축제

· 11.9(토) 16:00 / 문의 : 010-7767-4390  
· 신학교정 대성당(이정식 요한관) \*무료초대  
출연 : 부산가톨릭합창단, 울산가톨릭합창단,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안젤리카그레고리오합창단, 베아타그레고리오합창단, 아뉴스데이합창단, 뽀레나양상블, 라우다테윈드양상블, 시니어가리따스합창단, 부산가톨릭 챔버오케스트라, 부산가톨릭 청년합창단첼레스티스, 생활성가 오후의정원

### 르 보야즈 보칼레 양상블 연주회

샤르팡티에의 죽은자를 위한 미사곡  
지휘 이성훈, Sop. 강혜정  
· 11.23(토) 1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예매 : 인터파크(11.10(일)까지 30%할인)  
문의 : 010-7573-8320

###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 11. 6.  
김만수(요한 보스코)  
신부님



### 2025년 탁상용 달력 신청

- 신청방법 : 카카오톡 채널  
- <부산교구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  
- 내용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매가 : 3천원/1부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 입금계좌 : 농협 301-2018-0726-5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입금자명 : 성함+전화번호 끝 4자리
- 보급방법 : 12월 중 본당 수령(추후 공지)
- 문의 : 051-629-8717, 8750~2

### (주)씨 피 여행사

12/2 일본 나가사키 순례 항공 3일 KE  
2/11 멕시코 과달루페 순례 10일 AM  
2/23 루르드, 파티마 성모성지 13일 KE  
247-5858, 010-3837-6434

### (덕천)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 박우일 요셉  
331-8888, 8899  
덕천역 9번출구 파리바게트 건물 6층

### 미래고속관광

12월 국내성지순례 1차 12/14, 2차 12/21  
(대구/부산교구 5곳) 진목정성지, 살티공소,  
울산병영, 연양성당, 김범우순교자성지(미사)  
우종한(리차드) 010-3720-0303

### 스마일정경우비노의학과

전동아대병원 비노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744-8181, 010-5616-8600

### 삼성내과MR영상의학과

갑상선/당뇨센터, 위/대장 내시경  
전문의 14명(여의사 5명)  
박인호(루까), 서수홍(라파엘)  
하단역 2번출구 208-5566

###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1/6 멕시코(과달루페, 칸쿤 10일) 715  
3/26 대한항공 이태리일주 9일 419  
2/24 터키, 그리스 11일초특가 385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 제주성산골든뷰호텔

제주 성산일출봉·우도 길목  
섭지코지·올레1코스·성산포성당  
본당 단체별 맞춤 순례·가족·개인  
대표 오일석(요한) 064-784-8885

### 미카엘여행사 성지순례

(부산 출발) 1/13 나트랑, 달랏 5일  
1/21 태국, 파타야 5일  
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24학년도 겨울학기 및**  
**2025학년도 1학기 교육강좌 모집**  
 모집분야: 그리스도교 문화예술과정, 힐링·회복전문가과정, 꽃예술 과정, 자격증 과정, 인문교양 과정, 일반교양 과정  
 접수: 10.16(수)~11.15(금) / 제출방법: 홈페이지(<https://edu.cup.ac.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519-0492~4(평생교육원)

**음악교육원 성가대지휘 전문가과정 개설**  
 대상: 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있는 사람  
 기간: 연간 2주간 3년과정(토 09:00~13:00)  
 입학시험: 2025.2.15(토)  
 등록금: 1년 290만원 / 문의: 519-0475

**제14회 부산가톨릭서예인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1.11(월)~17(일) ·대청갤러리(가톨릭센터)  
 개전식: 11.11(월) 17:30  
 문의: 010-7511-3598

**제3회 부산시니어마리따스합창단 정기연주회**  
 ·11.18(월) 19:00 ·대연성당 대성전  
 지휘: 김현성, 단장: 홍옥기, 지도: 임석수 신부  
 문의: 010-6770-7776

**울산가톨릭합창단 20주년 정기연주회**  
 본당 성가대를 위한 창작전례성가  
 ·11.18(월) 19:30 ·아음성당  
 문의: 010-5586-0370(단무장)

**교육·모집·기타**

**부산 맨발 가르멜 재속회 지원자 모집**  
 신청: 2025년 1월까지  
 문의: 010-5870-2031(일요팀), 010-9413-9779(월요팀), 010-5160-4754(화요팀)

**밀양가르멜 수녀원 11월 후원 미사**  
 ·11.19(화) 10:30(매월 3번째 화요일)  
 ·남천성당 / 주례: 신호철 주교  
 문의: (055)353-6597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11.10(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010-9353-1773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11.10(일) 15:00 ·봉래성당  
 문의: 010-9464-208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모임**  
 대상: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상시 상담가능)  
 문의: 010-3355-4997, 010-9199-4995

**예수마음기도 하루 무료피정**  
 ·11.9(토) / 12.7(토) 10:00~15:00(14:00 미사)  
 매월 둘째주 (토) 무료피정 예정  
 ·부산 가톨릭센터(462-1870)  
 강사: 권민자 수녀 / 신청: 010-4837-7509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 들, 새로운 소명)**  
 ·11.11(월)~25(월), 12.9(월)~16(월)  
 (1주 75만원, 2주 150만원) ·강원도 흥천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대상: 60세 이상 / 문의: 010-7451-9707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 센터**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463-7866  
 내방상담: 월~토 10:00~16:30(동래 명륜역 2번 출구) -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토 10:00~16:30 청소년 상담 및 일반성인 상담  
 조옥진 신부(상담학 박사) : 영성심리상담 및  
 고해식 상담 -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상담  
 운영자: 김정애 회장, 전문상담사 및 조옥진 신부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매주 (금) 21:00~(토) 03:00  
 강사: 전국 유명강사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00 출발,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9:20 출발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성지순례(추자도포함): 11.18~21, 11.24~27  
 12.1~4, 3.1~4, 3.9~12, 4.12~15, 4.27~30  
 생태순례: 12.7~9, 12.13~15, 1.17~19(한라산)  
 연말연시특별피정(한라산): 12.30~1.2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눈꽃산행 접수중)  
 자연순례: 11.21~23, 12.1~3, 12.6~8, 12.14~16  
 한라산포함: 1.11~13, 1.16~18, 1.20~22, 1.24~26  
 2.1~3, 2.7~9, 2.15~17, 2.21~23, 2.25~27  
 연말연시(한라산): 12.29~1.1(해넘이/해돋이)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피정**  
 ·12.23(월) 16:00~25(수) 13:00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30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  
 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세계 3대 성모발현지**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2025.1.24(금)~2.2(일)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신부님 동행  
 문의: (02)2258-8983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일·공휴일 11:00 13:00 15:00 17:00  
**2종 패키지 출시 ; 스페셜 특전**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공간 101.1**  
 CAFE X STAGE X GALLERY  
 매주 월요일 휴무  
 OPEN 10:00, CLOSE 19:00

11월 · NOV

**대청갤러리 전시 안내**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센터 행정실 문의

**가톨릭사진가협회 제30회 정기전**  
 보시니 총더라 ('사람의 향기'전)  
 10.30(수)~11.5(화)  
 10:00~17:00

**제14회 부산가톨릭서예인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1.11(월)~11.17(일)  
 10:00~17:00



가톨릭신문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b>송월타일 부산진대리점</b></p> <p>SINCE 1965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632-5690, 010-4807-5690        양흥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p>	<p><b>정대수 맑은신경과</b></p> <p>전)부산대학병원장 치매, 어지럼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두통, 고혈압        부산대학교 부총장 불면증, 뇌졸중        남천역 3번출구 612-6100</p>	<p><b>우리자동차매매상사</b></p> <p>자동차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정비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및 신차의 모든 차량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p>	<p><b>보나투어</b></p> <p>1/24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725만원        5/25 산티아고 성지순례 12일 475만원        6/10 성모발현지 순례 12일 545만원        (02)732-4578 www.bonatour.co.kr</p>
<p><b>김병호 정형외과</b></p> <p>척추관절/통증재활/도수/물리치료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 : 김병호 루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4/5층)</p>	<p><b>가톨릭트래블</b></p> <p>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순례 포함        25년 3/30 (599만원+2000유로)        catravel.co.kr 070-4086-0207</p>	<p><b>이삿짐은 우리트랜스</b></p> <p>돌아가신 분 유품도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변성만(요한) 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p>	<p><b>독일보청기</b></p> <p>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 무료, 일반90%)        세계6대브랜드 보청기 모두 취급 판매        김무나(글라라)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빨간색간판)</p>